

조선 후기 궁궐의 일본 건축 요소 적용과 확산

Application and Spread of Japanese Architectural Elements in Palac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Based on the experience of building 'Waegwan(倭館)' in Busan, Japanese paper wallpapering, the use of square rafters, and the installation of sliding windows we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Joseon palaces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Elements that could be applied through observation alone were applied first, and sliding windows that required precise skill acquisition were installed later. 'Yeongchang(影窓)', which refers to a sliding window that brightens an interior, has spread rapidly, and its types and structures have also become more diverse. Gradually, 'Yeongchang' came to refer only to additional windows installed by attaching grooves to the lintel of existing casement windows. The sliding window that is installed independently and acts as an interior partition was renamed 'Chujangja(推障子)'. Japanese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Yeongchang' and 'Chujangja' have become an element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주제어 : 일본건축요소, 일본벽지도배, 각서까래, 미단이창호, 영창(影窓), 추장자(推障子)

Keywords : Elements of Japanese architecture, Japanese paper wallpapering, Square rafters, Sliding dow and window, Yeongchang(影窓), Chujangja(推障子)

1. 서론

조선시대 궁궐의 현존 건물은 17세기 전반에 지은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역대 국왕들을 거치면서 소실된 것을 재건하거나 신축하여 현재와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무렵부터 일본 건축 요소들을 궁궐 건물에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 왜능화지 도배와 건물 전체 평면의 각서까래 사용, 미단이 창호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세 요소는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확산되지 못하고 개별 사례로 남은 요소와 한국 전통 건축에 보편화한 요소가 있다.

미단이 창호는 기존 연구에서 일본 건축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에 설치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여단이 창호만 있었으나 일본에 사신 갔던 인물들이 미단이 창호를 보고 와 적용함으로써 한국 건축에도 미단이 창호가 설치되었다고 보았다.¹⁾ 한국

건축의 미단이 창호가 일본 건축 요소를 수용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미단이 창호의 도입 계기와 종류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건축에 도입된 미단이 창호의 구조와 기능을 일본 건축의 '아카리쇼지[明障子]'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나,²⁾ 미단이 창호가 일본에 사신 갔던 인물들의 관찰과 모방에서 시작했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장인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새로운 구조의 창호가 단지 사신의 관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살펴겠지만 한국 건축에 확산한 미단이 창호는 화원(畫員)이나 각자장(刻字匠)의 작업장에 임시로 설치한 데에서 시작하였다. 이어 궁궐의 주거 공간으로, 나아가 민가에까지 널리 확산하였다.³⁾

1) 한지만·이정미, 「전통건축의 障子에 관한 연구 : 障子の 기능 및 미서기의 문헌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0-6, 2014 ; 「한국 건축에서 미단의 도입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7-3, 2021

2) 위 논문(2014) 133~134쪽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그러므로 조선 목수가 일본의 미단이 창호 제작 방식을 익혀 궁궐 건축에 적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필자는 조선 감역관이나 목수가 부산의 왜관을 관찰하거나 왜관 건축에 참여한 경험이 일본 건축 요소를 도입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두모포에 설치했다가 17세기 후반에 초량으로 옮겨 신축했으며, 여러 차례 재건하거나 수리한 왜관 공사에 조선인 통역관이나 목수(木手)가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왜능화’로 불린 일본산 종이로 궁궐 실내를 도배한 사실과 일본의 보편적 서까래 형태인 단면이 사각형인 서까래를 건물 전체에 얹은 3개 건물을 살필 것이다. 장을 달리하여 미단이 창호를 처음 설치한 시기와 장소, 당시에 주목한 미단이 창호의 기능을 살필 것이다. 이어 미단이 창호가 상실화하고 분화하여 전통 건축 요소로 자리 잡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2. 왜관 건축과 조선 궁궐의 왜능화지 도배 및 각서까래 사용

2-1. 조선인의 왜관 건축 관찰과 건축 참여

왜관은 1607년(선조 40)에 두모포에 두었다가 1678년(숙종 4) 초량으로 옮겼다. 왜관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으며, 초량 왜관은 서관(西館) 및 서관 관련 건물만 941칸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왜관 건물은 조선에서 경비를 대고 일본 목수가 지었다. 일본 목수가 급료를 오래 받고자 공사를 지체하여 조선에 피해를 주자 조선에서 조선 목수의 공사 참여를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 목수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최고 기량을 갖춘 조선의 건축 기술자에게 일본 건축의 기법과 양식을 접하고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⁴⁾

조선 목수가 왜관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치 않다. 1667년(현종 8) 이전에 왜관은 온전히 일본 양식으로 지었고 조선 목수는 참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⁵⁾ 초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공사를 준

비하던 1675년(숙종 1)에 건축 양식과 기술이 조선과 달라 일본 목수만 참여해야 한다는 왜관측 입장과 조선 목수도 참여해야 한다는 조선측 입장이 대립하였다.⁶⁾

초량 왜관 신축에 조선 목수가 참여했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700년(숙종 26) 왜관을 수리할 때의 보고에서 목수와 감색(監色) 등을 정하여 간사한 행위를 적발하려 한 사실과,⁷⁾ 1701년에 비변사에서 작성한 규정에서 공방(工房) 소속 통역관을 파견하여 왜관 공사를 감찰한 이전의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⁸⁾ 왜관을 건축할 때에 조정에서 역관을 파견하는 것은 관례였으므로, 건축에 소양이 있는 역관을 특별히 선정하여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왜관이 두모포에 있을 때에도 조선인이 일본의 건축 요소를 접하고 익힐 기회가 있었으며, 초량으로 옮길 때에 건축에 소양이 있는 조선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723년(경종 3) 기록에서는 왜관 공사에 조선 목수가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조선 목수 10명이 일본 목수 10명과 함께 왜관을 수리하였다. 1726년(영조 2)에도 조선 목수 7명과 일본 목수 7명이 함께 작업하였다.⁹⁾ 1775년(영조 51)에 왜관 수리를 위해 만든 규정[節目]에도 조선 목수를 투입하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⁰⁾ 이로부터 1675년 이후 1723년 이전에

아갔다'고 합니다[丁未閏四月十一日(중략)東萊府使李之翼狀啓內 今此倭館失火之患(중략)首譯金謹行言內 前後倭館東西廳造作時 不用我國木手 自島中率來匠工 一從渠國規製造作後 計受手功是如云云是如是白置”(『島中失火』)

6) “을묘(1675) 4월 17일 동래부사 어진익의 장계에…왜인들이 말하기를 ‘…하물며 이 관사의 제작은 귀국과 달라서 일본 목수가 아니면 모양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저희들이 말하기를 ‘가옥 제작의 설이 과연 말한 것과 같더라도 공방의 역은 반드시 왜인에게 온전히 책임 지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목수가 역시 가능한 대로 일을 돕겠다’라고 하였습니다[乙卯 四月十七日 東萊府使魚震翼狀 啓(중략)倭等曰(중략)況此館宇制作與貴國不同 若非日本木手則無以成樣(중략)小的等曰 家舍制作不同之說 果如所言 而工匠之役 不必專責於倭人 我國木手 亦當從多助役”(『倭館移建謄錄』)

7) “경진(1700) 1월 20일…수리하는 데 드는 물품과 노력이 이미 매우 큰데 값으로 쳐주는 은의 수효도 이처럼 너무 많으니…목수와 감색 등을 별도로 정하여 수리하는 곳의 간사함을 적발하고자 마련할 것을 생각하거니와[庚辰正月二十日(중략)修理物力雖已浩大是白乎乃 價銀之數如是太多(중략)別定木手監色等 方欲摘奸修理處磨鍊計料是白在果]”(『왜관이건등록』)

8) “신사(1701년) 7월 20일 비변사의 왜관을 감찰하는 절목…앞서 통사 중에 공방의 1인을 특별히 정하여 왜관의 왜인을 감찰하게 하였는데[辛巳七月二十日 備邊司倭館看檢節目(중략)曾前通事申別定工房一人使之看檢倭爲白有在乎]”(『왜관이건등록』)

9) “癸卯年 西館修理時物力磨鍊謄錄 西館三大廳五行廊舍九百四十一間(중략)倭木手十名 每名每日六錢(중략)我國木手十名 每名每日三錢(중략)丙午年 東館修理物力磨鍊謄錄(중략)倭木手七名 每日六錢(중략)我國木手七名 每名每日四錢(『別謄錄』)

3) 한지민·이정미, 「한국 건축에서 미단의 도입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7-3, 2021, 157쪽

4) 본고에서 의뢰 기록 검색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s://kyu.snu.ac.kr/>)의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이 되는 기록은 본고에서 의뢰의 명칭만 제시한다. 나열된 한자에서 필요한 정보가 드러나는 문장은 각주에 원문만 제시한다.

5) “정미(1667) 윤4월 11일…동래부사 이지익의 장계 내용에 지금 왜관에 불이 났는데…수역관 이근행이 말하기를 ‘전후에 왜관 등·서청을 만들 때에 우리나라 목수를 쓰지 않고 섬에서 장인과 공장을 데려와서 한결같이 그 나라의 제도를 따라 만든 뒤에 수공을 계산하여 받

조선 목수의 왜관 건축 참여가 관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측에서 왜관의 건축 양식과 기법이 조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장기간 조선 목수 투입을 막은 것을 고려하면 궁궐이나 관청 건축에 종사하는 기량이 뛰어난 목수를 투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왜관이 두모포에 있을 때부터 조선인이 일본 건축 기술과 양식을 접하였으며, 초량으로 옮긴 뒤에는 더욱 깊게 개입하여, 조선인 목수가 직접 건축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궁궐 건축에 적용한 일본 건축 요소는 조선인이 왜관 건축을 접하거나 건축에 참여한 경험이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선 궁궐에서 일본 건축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확인된다.

2-2. 왜능화지 도배와 건물 전체 평면의 각서까래 사용

(1) 왜능화지(倭菱花紙) 도배

조선 후기 궁궐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왜능화(倭菱花)’로 불린 일본산 종이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필자가 살핀 기록에서 왜능화지는 1649년(효종 즉위)에 처음 확인된다. 이 능화지는 인조의 국장에 지식족자(誌石簇子)를 만드는 데 쓴 것으로¹¹⁾ 실내 도배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조경(趙綱, 1586~1669)은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도성 안에 위로는 관리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친한 자들까지 집 벽의 도배를 외국의 능화지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¹²⁾ ‘외국능화(外國菱花)’는 일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종이를 뜻할 것이다. 이로부터 17세기 중반에 서울 지역 민가에서 일본산 능화지로 도배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62년(현종 3)부터 청 사신에게 왜능화지를 예물로 준 것이 확인된다. 『칙사증급(勅使贈給)』에는 예물 목록이 1643년(인조 21)부터 1786년(정조 10)까지 정리되어 있다. 왜능화지는 1662년의 물품 목록에서 처음 확인되며, 『승정원일기』에도 1662년 청 사신이 요구한 ‘왜능화’를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확인된다.¹³⁾ 1662년에 청 사신에게 준 왜능화지는 관례대

로 주는 예물(禮物)이 아니라 상부사(上副使)와 부사, 차통관이 별도로 요청하여 받아 간 물품이었다.¹⁴⁾

왜능화지는 『칙사증급』의 마지막 기록인 1786년(정조 10)까지 빠짐없이 예물 목록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청 사신이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 간 물품 목록에 들어 있다. 그러나 정사와 부사 2명이 모두 청구하여 조선 정부에서 의례로 주는 물품이 되어갔음이 확인된다. 1697년(숙종 23)에는 ‘대오동(大梧桐)왜능화’라는 물품명이 보여 문양의 종류와 상대적 크기도 확인된다. 그리고 1819년(순조 19)에 작성한 『빈례총람』에는 왜능화지가 조선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주는 예물 목록에 포함되었다.¹⁵⁾

이처럼 왜능화지는 17세기 중반 무렵 서울 지역 주택에서 도배지로 사용하였으며, 1662년 청 사신단 일부의 특별 청구에서 시작되어 관례적인 예물이 되었다. 1662년 전례에 없이 왜능화지를 청구한 것은 조선에서 왜능화지 실물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 사신은 왜능화지로 도배한 궁궐이나 민가의 실내를 보고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능화지 청구가 관례화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왜관 무역을 통해 일본산 능화지를 대량으로 수입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궁궐에 왜능화지로 도배한 사례도 확인된다. 1725년(영조 1) 경덕궁(경희궁) 위선당(爲善堂)의 벽과 천장이 왜능화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신하들이 일차 왜능화지 도배를 확인한 뒤, 다시 실내를 점검할 때는 도배지를 제거한 상태였다.¹⁶⁾ 영조가 위선당의 왜능화지 도배에 대해 선대왕이 오래도록 색이 바래지 않아 쓴 것이지 사치를 부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 것을 보면,¹⁷⁾ 당시 왜능화지는 값비싼 물품이었음을 알

13) “以迎接都監言啓曰(중략)倭菱花(중략)措備應副”(『승정원일기』 177책 현종 3년(1662) 12월 6일(을사))

14) “康熙元年 頒慶勅(중략)上副使別求請(중략)倭綾花三十軸(중략)副使別求請(중략)倭綾花十軸(중략)次通官尹堅申金別求請(중략)倭綾花四軸”(『勅使贈給』)

15) “使副使(중략)倭菱花十軸(중략)大通官(중략)倭菱花十軸(중략)次通官倭菱花六軸”(『嬪禮總覽』)

16) “위선당의 동서쪽 방의 벽과 반자 도배는 근일 도감에서 살피니 벽과 반자 도배가 모두 왜능화지였는데 지금 수리를 시작하는 당일에 와서 살피니 전날에 본 벽과 반자 도배는 내시가 모두 철거하였습니 다.[爲善堂東西邊房壁縉斑子頃日自都監奉審則壁縉與斑子皆倭菱花是如乎今以修改始役當日來審則前日所見壁縉與斑子所塗中使盡爲撤去矣]”(『宗廟改修都監儀軌』)

17) “위선당…상이 말씀하기를 ‘왜능화지는 오래되어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 유신은 모르겠지만 승선은 일찍이 선대왕 때에 임하였으니 선대왕 거처의 검소한 풍모를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爲善堂(중략)上曰 倭綾花 久而不渝色矣 儒臣則似未知 而承宣則曾於先朝入侍 則可知先朝居處儉素之風矣].”(『승정원일기』 606책 영조 1년(1725) 12월 11일)

10) “우리나라 목수와 역군도 다수가 역을 도와 기사년의 공사 기한에 비해(빨리) 역을 마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때에[我國木手與役軍 亦爲多數助役 期於比已限朔 畢役計料如是之際]”(『監董所許貸錢區劃節目』)

11) “本房進上誌石簇子四件(중략)四件所入(중략)白倭綾花四卷十張 靑倭綾花五卷”(『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12) “都城之內 上自卿大夫 下至市井輿臺 無不窮奢極侈 屋壁之塗 非外國菱花不用也”(『龍洲遺稿』 권9 疏 「應旨疏」)

수 있다. 신하들이 접하기 힘든 내전 영역에 주로 도배하여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피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왜능화지는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 상례 때에 이안청으로 지정된 위선당 도배지에도 포함되었다. 이 도배지는 ‘금소오동왜능화[金小梧桐倭菱花]’로 표기되어 금박으로 작은 오동무늬를 찍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왜능화지는 1789년에 작성한 『원행정례(園幸定例)』의 화성행궁 도배용 지물 목록에도 포함되었다. 1832년 순조는 왜능화지 600장을 주어 명은공주 묘 앞에 짓는 건물에 도배하게 하였다.¹⁹⁾

이처럼 왜능화지는 17세기 중반 서울 지역 주택에서 도배지로 사용하였다. 궁궐에서는 1725년 이전에 도배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처럼 민가와 궁궐에서 일본산 왜능화지로 도배하게 된 데에는 왜관 건축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관리와 상인, 장인은 일본산 종이로 도배한 왜관의 실내에 감명을 받았으며, 왜관 무역을 통해 왜능화지를 대량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에서도 왜능화지의 인기가 높았던 것은 조선 사신단에게 왜능화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라고 부탁한 1700년(숙종 26)의 사례와 사신단의 일원이 왜능화지를 사적 선물로 준비해 간 1765년(영조 41)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²⁰⁾



그림 1. 창덕궁 성정각 반자 도배 상태

(감술).

18) “移安廳定於爲善堂(중략)塗襦鋪陳則本所當爲舉行(중략)物種磨練後錄(중략)後 白菱花三卷十八張 金小梧桐倭菱花六張 靑菱花六十四條 里 白休紙一斤二卷二張”(『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19) “十月初二日 判付 白綿紙一百卷 白紙一百九十卷 倭菱花六百張 小各壯五十張[以上塗襦次]”(『明溫公主房喪葬禮騰錄』)

20) “차통관 최대보가 역관 변이황에게…‘다음에 올 때에는 반드시…우리나라[조선; 필자]의 담배와 왜능화지를 넉넉하게 가져올 일을 미리 다 귀국하여 보고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말하였다[次通官崔大保言於譯官邊爾璜曰(중략)須於後行(중략)我國葉南草及倭菱花紙優數資來

현재 왜능화지는 현물이나 도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97년 수리 전에 창덕궁 성정각 반자에 일본산 종이로 도배되어 있던 상태가 사진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 주로 쓰는 등근 문양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으로 찍혀 있다.²¹⁾ 기록에서 왜능화지의 문양을 ‘대오동’, ‘소오동’으로 구별한 사례에 비추어 성정각 반자에 도배한 종이는 무늬가 큰 왜능화지로 보인다.

(2) 각서까래만 사용한 건축

일본 건축에서는 보편적으로 단면이 사각형인 각서까래를 쓴 반면²²⁾, 조선 건축에서는 단면이 원형인 서까래를 썼다. 조선 건축에서 전체 평면에 각서까래를 얹은 건물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건물 전체에 각서까래를 얹은 것도 일본 건축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각서까래는 구조재라는 점에서 장식재인 왜능화지보다 건축 요소로서 의미가 크다. 현존 궁궐 건물 중 창덕궁 취운정과 청심정, 육상궁(毓祥宮) 냉천정은 조선 전통 가구법으로 지었으면서도 서까래만은 건물 전체에 각서까래를 썼다.²³⁾

각서까래는 원형 서까래에 비해 내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건축적으로 불리한 부재이다. 그러므로 건물 전체에 각서까래를 얹는 것은 일각문이나 복도각, 보침(補簷) 등 부수적이고 가구가 단순하며 지붕이 무겁지 않

事預爲知悉歸報宜當云.】(『燕行錄(1700)』); “난공이 말하였다. ‘김대인이 주신 왜능화지는 일본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본국에서 나왔습니까?’ 나(홍대용; 필자)는 말하였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蘭公曰 金大人見惠倭菱花紙。出日本耶 抑本國耶 余曰 出日本].’”(『湛軒書』 外集 권2 杭傳尺牘 「乾淨筆談(1765)」)

21) 문화재청공능유적본부창덕궁관리소, 『창덕궁성정각권역보수공사수리보고서』, 2020, 39쪽

22) 본고에서 ‘각서까래’라고 표현한 단면이 4각형인 서까래는 조선 후기 의궤 기록에서 ‘방연(方椽)’으로 표기하였다. 조선 건축에서 서까래는 오래 단면이 원형이므로 ‘방연’ 용어를 써서 보편적인 형태의 서까래와 구별한 것이다. 일본에서 서까래는 ‘다루끼(垂木[たるき])’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의궤에서 ‘방연’으로 표기한 부재와 일본에서 ‘다루끼’로 부르는, 보편적으로 단면이 사각형인 서까래를 ‘각서까래’로 표기한다.

23) 『궁궐지』에 왕대 표기 없이 ‘병자년에 세웠다[丙子建]’고 기록한 창덕궁 청의정도 각서까래를 사용하였다. ‘병자년’을 인조 때의 병자년으로 보면 1636년(인조 14) 건물이 된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둥과 도리, 서까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물에 비해 현격하게 가늘며, 도리의 결구와 대공의 형태, 편액의 구조가 특수하다. 주초의 재질과 형태, 문양도 조선 건축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고 ‘인조병자년가을[仁祖丙子秋]’로 건립 시기를 기록한 태극정 주초와도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청의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선의 보편적 가구법으로 지으면서 서까래만 모두 각서까래를 얹은 청심정과 취운정, 냉천정만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외에 창덕궁 관람정도 각서까래만 썼으나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람정은 『동궐도』에 보이지 않으며, 관람정 앞의 한반도 모양 연못도 『동궐도』와 전혀 다르다. 또한 바닥에 장마루를 깔았으며, 호안 석축도 다른 연못의 석축과 달라 19세기 말 이후 근대기에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은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²⁴⁾ 조선의 궁궐 건축에서 주전각은 부연만 각서까래를 썼고, 민가 건축에서도 상주양진당(養眞堂)처럼 홀처마의 처마 부분 서까래를 부연처럼 각지게 깎은 경우는 있지만, 실내 부분에 각서까래를 얹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²⁵⁾

반면에 일본 건축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각서까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일본 사원 건축의 경우 고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원형 서까래[地垂木]와 사각형 부연[飛檐垂木]을 썼으나 이미 호류지[法隆寺]와 도다이지[東大寺]의 중요하지 않은 전각에 각서까래를 썼으며, 다이고지[醍醐寺]의 5층탑(951년)을 건립한 이후에는 서까래와 부연 모두 각서까래가 일반화되었다. 서까래와 부연 모두 각재를 쓰는 것은 일본 건축의 특징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둥근 서까래와 각진 부연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비된다.²⁶⁾ 부산 두모포와 초량 왜관은 온전히 일본 양식으로 지었으므로, 건물의 전체 평면에 각서까래를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현존하는 고려와 조선 전기 건물들은 서까래의 단면이 모두 원형이다. 조선 후기 이후 근대기 이전 건축으로 주건물이면서 평면 전체에 각서까래를 쓴 건물은 위에서 언급한 3채뿐이다.

이들 건물은 숙종에서 영조 때에 해당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 이전에 지었다. 창덕궁 취운정은 1686년(숙종 12)에 지었고,²⁷⁾ 청심정은 1688년(숙종 14)에 지었다.²⁸⁾ 2년 간격으로 지었고, 전체 평면에 각서까래를 얹었다는 점에서 같은 도편수가 주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냉천정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사당인 육상궁의 재실로 추정된다.²⁹⁾ 초창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725년(영조 1) 숙빈묘라는 명칭으로 사당을 지었고 『승정원일기』에 1745년부터 육상묘(육상궁)의 ‘재실’이 나타난다.³⁰⁾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면, 냉천정은 1725년 이후 1745년 이전 건축이 된다. 1882

년(고종 19) 8월 1일 육상궁에 화재가 발생하자 냉천정에 있던 영조의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8월 5일 다시 냉천정에 둔 것을 보면,³¹⁾ 현 냉천정은 영조 때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운정, 청심정, 냉천정을 지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은 조선인이 왜관을 통하여 일본 건축 요소를 접하였고, 궁궐에 일본산 왜능화지 도배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각서까래 사용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습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단이 창호에 앞서 조선 건축에 적용한 일본 건축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초량 왜관을 1678년에 완공한 것을 고려하면, 1686년에 지은 취운정의 각서까래 사용은 왜관 건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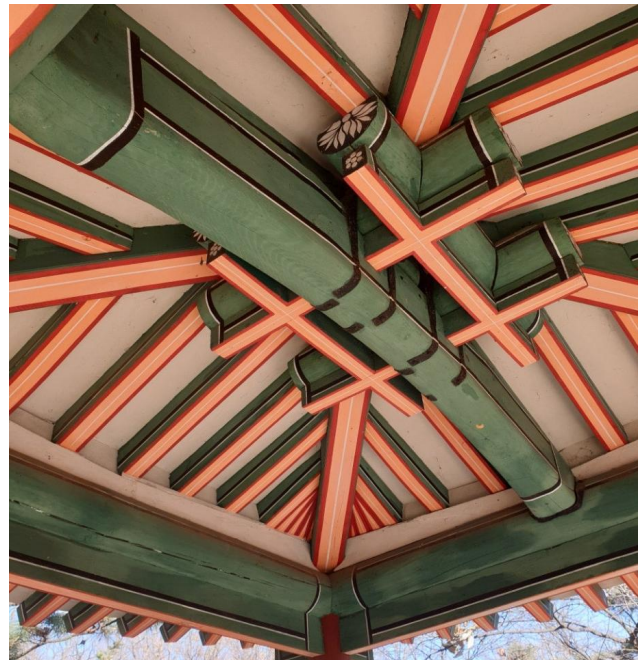


그림 2. 창덕궁 청심정의 각서까래 현황

그러나 조선에서 각서까래 사용은 다른 건물로 확산하지 못하였다. 이들 세 건물보다 늦게 지은 궁궐의 주건물은 모두 원형 서까래를 썼다. 이는 각서까래가 원형 서까래에 비해 하중에 취약하여,³²⁾ 적심과 보토를 두껍게 얹는 조선 건축에 적절치 않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4) 현존 궁궐 건물에서 소규모 복도각에 각서까래를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복도각의 각서까래도 일본 건축 요소를 적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25) 조현정·김왕직, 「목조 건축의 방언 용례 연구」 『건축역사연구』 26-1, 2017 참조.

26) “古都奈良の名利寺院の紹介, 佛教文化材の解説など「垂木のお話」” 참조(<https://www.eonet.ne.jp/~kotonara/tarukinooha.htm>).

27)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취운정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 참조.

28) 『궁궐지』

29) 문화재청, 『칠궁수복방편역보수공사 해체실측 및 수리보고서』, 2022 참조.

30)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3월 15일(정해)

31)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8월 1일(갑인); 고종 19년 8월 5일

32) 조현정·김왕직, 「목조건축의 방언 용례 연구」 『건축역사연구』 26-1, 2017

3. 미단이 창호의 설치와 확산

3-1. '영창'의 임시적 설치와 기능

앞 장에서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전반 궁궐에서 왜능화지로 도배한 것과 현존하는 3개의 건물에서 전체 평면에 각서까래를 얹은 것을 확인하였다.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역시 일본 건축 요소인 미단이 창호를 궁궐 건물에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 미단이 창호는 기록에서 '영창(影窓·映窓·映窓)'으로 나타난다.

현재 '영창'은 보편적으로 문 흠이 한 줄이고 갑창[두꺼비집]과 짝을 이루는 창을 가리킨다. 문 흠이 두 줄이어서 창호끼리 겹칠 수 있는 구조는 '미서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영창'은 문 흠의 수나 갑창과 관계가 없고 실내를 밝게 하는 기능에 유의한 용어였다. 또한 상설(常設) 창호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假設) 창호로 나타난다. 필자가 확인한 '영창'의 가장 이른 용례는 18세기 중반의 의궤 기록에 보인다.

①무진(1748) 정월 일(日). 지금 이 (영정을) 베껴 그릴 때에 선정전 삼면의 영창장자[映窓障子]를 만들라고 왕명을 전하셨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일...선정전 삼면에 배치할 영창만전장자창호[映窓滿箭障子窓戶] 아울러 14부[浮]는 연창지로 도배하고 기름을 바른다.³³⁾

②(임금이) "선정전의 광장자(廣莊子)에 기름을 바른 뒤에 밝아졌는가?"라고 말씀하시자 이주진이 "과연 밝아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³⁴⁾

1748년(영조 24) 1월에 선정전은 숙종의 영정을 모사하는 장소가 되어 필요한 기물과 설비를 갖추었다. 이때의 사실을 정리한 의궤에서는 영조가 '영창장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여 '영창만전장자창호 아울러[并] 14부'를 만들어 연창지로 도배하고 기름을 발랐다고 기록하였다. 동일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서는 '광장자(廣莊子)에 기름을 발라 내부를 밝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영정 모사처가 된 선정전에 새로 설치한 창호는 '만전장자'에 '영창'이 결합된 구조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 문서에서 '并[아울러]'은 복수의 물종이나 인명을 나열한 뒤 이들 전체를 포괄함을 나타내는 관

용적 표현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창호 개수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단위는 '척(隻)'이었고, '부(浮)'는 지의(地衣), 유둔(油菴)이나 휘장[帳]처럼 일정 규격의 석자(席子), 종이, 천 등을 복수로 연결하여 만든 물종을 표현하는 단위로 쓰였다. 그러므로 '영창만전장자창호 아울러'는 이 창호가 영창과 만전장자로 구성됨을 알려주고, '14부'는 영창과 만전장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위를 이룸을 알려준다. 『승정원일기』의 '광장자'는 영창과 만전장자로 구성된 창호를 뜻할 것이다.

선정전에 영창장자·광장자를 설치한 것은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창호지에 기름을 칠하여 내부를 더욱 밝게 하였다. 선정전에는 기존에 창호가 있었고, 이 창호는 『동궐도』에 여단이 구조의 분함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영정 모사 장소가 된 선정전의 영창은 상설이 아닌, 초상화를 베껴 그리는 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假設) 창호였음을 알 수 있다.

'영창(映窓)'을 설치하면 기존 창호에 비해 실내를 밝게 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세전[細箭]이나 만전[滿箭] 창호는 창살 측면이 두껍고 창살이 촘촘하여 햇살 각도에 따라 실내의 밝기 변화가 심하다. 그러므로 1748년 선정전에 설치했던 영창이 미단이 구조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창살이 가늘고 간격이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호를 여단으로 설치하면 미단에 비해 충격을 많이 받고, 이후 확인되는 상설 '영창'이 미단이 구조임을 고려하면, 문흠을 파서 끼워 넣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궁궐 건축에서 '영창'은 18세기 중반 무렵 실내를 밝게 하는 기능에 유의하여 작업장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데서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창'의 이와 같은 기능과 작업장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은 이후에도 확인된다.

①이 공문서[甘結]는 지금 보략(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각색 공장이 거접할 흙집[土宇]의 영창(映窓)에 들어갈 법유(法油) 2되, 황밀(黃蜜) 3냥, 후백지(厚白紙) 2권 10장 등을 실제 수량대로 투입하고자 바쳐서 배치하는 일을 위함임.³⁵⁾

②이 감결은 바쳐 배치하는 일을 위함임. 지금 이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제각장(蹄刻匠) 임시가옥(假家)의 영창에 도배할 후백지(厚白紙) 6장을 바쳐 배설할 일.³⁶⁾

33) “一今此摸寫教是時 宣政殿三面映窓障子造作事 傳教教是置 依此舉行事...宣政殿三面所排映窓滿箭障子窓戶并十四浮 塗煙窓紙着油”(『影帳摹寫都監儀軌』)

34) “又教曰 宣政殿廣莊子 着油後明朗乎 周鎮曰 果明朗矣”(『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8) 1월 28일(계축))

35) “右甘結 爲今此譜略修正時...各色工匠所接土宇映窓所入法油貳升 黃蜜參兩厚白紙貳卷拾張等 從實入次進排事”(『瑤源譜略修正本廳儀軌』)

36) “右甘結爲進排事 今此 譜略修正時...蹄刻匠 假家影窓塗精次厚白紙陸張進排事”(『瑤源譜略修正儀軌』)

③이 감결은 본청[실록청] 삼방(三房)의 당상께서 분부하신 내용에 창호가 흐리고 어두우면[昏黑] (글자와 문장을) 산절(刪節)하는 작업이 극히 어려우므로 두 곳의 창호는 영창이 있는 연후에 추려서 단락지를 수 있으니 두 곳 영창의 여러 설비를 빨리 만들어서 바쳐 배치할 일.³⁷⁾

위 인용문의 ‘영창’ 용례들은 모두 목활자를 새기거나 조판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록에서 확인된다. 배열한 순서대로 1757년(영조 33)과 1771년(영조 47)에는 왕실 족보 수정 과정에서, 1800년(순조 즉위)에는 『정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영창(影窓)’을 설치하였다. 1800년 기록에서는 기존 창호보다 실내를 밝게 하는 영창의 기능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기존 창호를 설치한 실내는 ‘흐리고 어두운[昏黑]’ 데 반해 영창을 설치하면 작업에 필요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1748년부터 1800년까지 ‘영창’은 채광의 장점으로 인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영창’은 상설 건물로 보이지 않는 흙집[土宇], 임시가옥[假家] 등에 설치하여 작업 기간에만 유지하는 가설 창호였다고 짐작된다.

3-2. 덧창호인 ‘영창’의 상설(常設)과 분화

의례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영창’은 1748년(영조 24) 국왕 초상화를 베껴 그리는 작업장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영창을 궁궐의 주거 건물에 상설(常設)한 사례는 1789년(정조 14)에 확인된다.

영창 8척을 만들 변판 2립, 둔테 4개, 박이 3촌 도내두못[道乃頭釘] 10개, 양 배목을 갖춘 작은 고리 2개³⁸⁾

위 인용문은 1789년(정조 14) 문효세자의 사당인 문희묘의 재실에 영창을 설치하면서 투입한 물종과 수량을 적은 것이다. 물종과 수량을 적용하면 문희묘 재실 영창의 개수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영창은 모두 8척을 만들었고, 영창을 고정시키는 둔테 4개를 마련하였다. 이 둔테를 도내두못 10개를 박아 고정하고 창에는 배목을 갖춘 문고리용 고리쇠 2개를 달았다.

본래 둔테는 여닫이문에서 지도리를 고정하는 부재를 뜻한다. 창호의 규모가 작으면 문얼굴의 상방과 하

방에 붙여 창호 전체를 가로지르도록 설치하므로 상·하 2개가 한 조를 이룬다. 따라서 위 기록의 둔테 4개는 두 조를 구성한다. 영창이 모두 8짝이므로 한 조 당 영창 4짝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둔테를 고정하는 도내두못이 모두 10개이므로 둔테 한 조 당 5개씩 사용하였다. 하중이 걸리는 아래쪽에 3개를 박고 위쪽에 2개를 박았을 것이다. 배목을 갖춘 문고리용 고리쇠 2벌은 여닫는 중간 부분에 설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물종과 수량 기재는 1789년이 궁궐 건축에 영창을 상설하기 시작할 무렵임을 알려준다. 지도리를 고정하는 둔테를 영창을 고정하는 부재 명칭으로 기재한 것은 이때까지 ‘흙대’에 해당하는 명칭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뒷 시기의 기록에서는 이 부재를 가늘고 긴 막대를 뜻하는 ‘조리[條里]’나 ‘죽(竹)’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영창은 현재 개념의 미단이와 미서기를 포괄하였다. 위 인용문의 물종과 수량대로 창을 설치하면 한 조당 ‘영창’ 4짝씩 설치하게 된다. 도리칸의 보편적 너비를 고려하면, 4짝은 도리칸 전체를 건너질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창’은 문홈이 두 줄이고 창호가 서로 겹치는 4짝 미서기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1789년에 미단이 창호인 ‘영창’은 실내를 밝게 하는 기능에 유의한 명칭으로 창호가 맞닿는지 겹치는지에 따른 명칭 구분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748년에 가설(假設) 창호로 처음 확인되는 ‘영창’은, 1790년을 전후하여 궁궐의 상설 창호가 되었다. 19세기에 작성한 건축 관련 의례에서 ‘영창’은 창호 내역을 기재한 부분에 대부분 나타난다. 또한 단창이나 쌍창 영창은 갑창(甲窓)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영창 구조로 인한 부가적 창호인 흑창(黑窓)도 확인된다. 나아가 종류나 형태에 따라 영창의 명칭이 분화되어 갔음이 확인된다.

영창 2부(部). 매 부에 들어가는 상·하대(帶) 길고 좁은 조리목(條里木) 2개, 박이 5촌 동곳못 6개, 영창 2척, 갑창(甲窓) 2척...³⁹⁾

위 물종과 수량은 1805년(순조 5) 순정왕후의 장례를 치를 때에 수릉·시릉관의 방에 영창을 설치한 내역이다. 영창은 모두 2부(部)를 설치하였다. 상·하 흙대용 조리목 2개와 흙대를 고정하는 동곳못 6개로 영창 1부

37) “右甘結 本廳三房堂上敎是分付內 窓戶昏黑 刪節之役極難 兩處窓戶 有嘆窓然後可以抄節爲敎是置 同兩處嘆窓諸具 星火造作進排事”(『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38) “影窓八隻次 邊板二立 屯太四介 朴只三寸道乃頭釘十介 小圓環兩排具二介”(『文禧廟營建廳瞻錄』)

39) “影窓二部 每部所入 上下帶長小條里木二箇 朴只五寸童串釘六箇 影窓二隻 甲窓二隻 合厚正板半立”(『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를 설치하였다. 위아래 3개씩 박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영창 2짝[척]과 갑창 2짝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현재의 ‘영창’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당시 영창의 개념은 현재보다 넓었다. 다만, ‘영창’ 명칭에 다른 요소를 부가하여 종류와 형태를 표현하였다.

1834년의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는 대조전의 창호 내역에 분합영창 22척, 쌍창영창 30척, 갑창 30척, 흑창(黑窓) 30척을 기재하였다.⁴⁰⁾ 이 시기에 영창은 실내를 밝게 하는 미단이 창호를 뜻하였고, 위치나 형태에 따라 ‘분합영창’, ‘쌍창영창’ 등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영창과 여단이창 사이에 흑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영창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1906년에 작성한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서 함녕전 창호 중 영창은 분합영창, 횡영창(橫暎窓), 연영창(連暎窓), 단분합영창(短分合暎窓), 쌍영창(雙暎窓)이 확인된다.⁴¹⁾ 내재실(內齋室)에서는 갑창 1척과 조를 이룬 호문영창(戶門暎窓)도 확인된다.

그런데 ‘영창’ 명칭이 들어 있는 창호를 보면 덧창호 즉, 기존의 여단이 창호에 덧붙여 설치한 창호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는 영창의 명칭에서도 확인된다. 분합영창은 여단이 분합에, 쌍영창은 여단이 쌍창에, 단분합영창은 여단이 단분합에, 호문영창은 지계문[戶門]에 각기 부가하여 설치한 영창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영창’ 표현이 들어있는 창호는 여단이 창호의 문인방에 홈대를 덧대었거나 홈대 설치 흔적이 있는 곳에 설치했음을 확인하였다.⁴²⁾

이처럼 ‘영창’ 표기가 들어 있는 창호는 기존의 만전이나 세전 창호의 상·하 인방에 홈대를 붙여서 설치한 것으로, 여단이 창호가 기본 창호가 되고 영창은 덧창호가 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영창은 기본 창호가 아니라 여단이 창호의 상·하 인방에 덧붙여 설치하는 미단이 창호를 뜻하였다.

3-3. 칸막이용 기본 창호인 ‘추장자(推障子)’ 설치

19세기 초까지 궁궐 건축에서 ‘영창’은 기본 창호인 여단이 창호에 부가한 덧창호를 뜻하였다. 그런데 ‘영창’과 동일하게 미단이 구조이면서도 ‘추장자[推障子; 밀장지]’로 명칭을 달리하는 창호가 확인된다. 필자가

40) “大造殿…分閤影窓二十二隻 雙窓影窓三十隻 甲窓三十隻 黑窓三十隻 上下竹四十二箇”(『昌德宮營建都監儀軌』)

41) 황보영희·장순용·한동수, 『『경운궁중건도감의궤』를 통한 함녕전의 창호 원형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7-1, 2007 참조

42) 위 논문 참조.

확인한 가장 이른 용례는 1789년에 건축한 화성행궁에 ‘추장자[推障子]’ 4척(隻)을 설치한 것이다.⁴³⁾

현재 ‘推障子’를 ‘밀장지’로 발음하거나와 일본 창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推開推闔[밀어 열고 밀어 닫는다]’이라는 표현을 썼듯,⁴⁴⁾ 전근대시기에 ‘推[밀다]’는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여단은 미단이 방식을 가리켰다. 1863년(고종 즉위) 의궤 기록에서 문을 여닫는 방법에 기준하여 ‘開閉障子[여단이장지]’와 ‘推障子[밀장지]’로 구분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⁴⁵⁾ 그러므로 1789년 경에 미단이 구조의 창호를 ‘영창’과 ‘추장자[推障子]’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추장자’는 1805년(순조 5) 정순왕후의 상례를 치를 때에 창경궁 숭문당(崇文堂)에 4척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등⁴⁶⁾ 건축 관련 기록에서 영창과 함께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를 작성한 1805년(순조 5)까지 ‘영창’과 ‘추장자’는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영창’이 ‘추장자’까지 포괄할 수 있었다. 의궤에서 ‘추장자 4척’은 내곡립청이 된 숭문당에 만전분합 4척과 함께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추장자가 같은 의궤에서 ‘영창’으로도 표현되었다. 숭문당 남퇴에 ‘만전장자’를 설치하였고, 서퇴 제1칸에 영창을 설치하였다.⁴⁷⁾ ‘만전분합’은 ‘만전장자’와 같은 것이고, ‘추장자’는 ‘영창’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805년 의궤 기록에서 영창은 추장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한편, ‘영창’으로 포괄할 수 있는 창호를 ‘추장자(推障子)’로 표기하여 추장자가 영창의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었다.

다른 미단이 창호와 달리 ‘추장자’만 명칭에 ‘영창’ 표현이 없는 것은 이 창호를 칸막이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자’는 칸막이 기능을 하는 건축 요소이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조선 관리도 일본 주택의 실내를 미단이 장자로 구획한 것에 유의하였다.⁴⁸⁾ 그러므로 미단이 창호가 칸막이 장자의 기능을 하면 ‘추

43) “塗楮秩 行宮 溫埃肆間(중략)推障子肆隻內塗草注紙捌張”(『園幸排設定例』)

44) “日本國在於東南海中(중략)四面窓戶皆設障子 塗以薄紙 推開推闔”(『日省錄』 1843년(현종 9) 12월26일(갑자))

45) “齋室 推障子一間四隻(중략)開閉障子二隻”(『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46) “崇文堂修補所入(중략)滿箭分閤 四隻 推障子 四隻 新造所入”(『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47) “內哭臨廳 定於崇文堂鹿廳修補改瓦椽上塗灰(중략)南退設滿箭障子塗草注紙○西退第一間設影窓”(『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48) 한지만·이정미, 『전통건축의 障子에 관한 연구 : 障子の 기능 및 미서기의 문헌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6, 2014 참조

장자'로 구별했다고 보인다. 이는 승문당에 설치한 '추장자'의 위치를 '서퇴 제1칸'으로 기재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832년의 『서궐영건도감의궤』와 1834년의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는 '추장자'의 칸막이 기능과 구조가 잘 나타난다. 재건한 경희궁(서궐) 건물에 가장자(假障子)와 추장자를 칸 단위로 기록하였다. 가장자는 총 26칸, 추장자는 용복전 4칸, 회상전 3칸 등 총 18칸에 설치하였다. 가장자와 추장자는 문얼굴 제작에 소요된 인방과 중방, 벽선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인방과 중방이 88개이고, 벽선이 88개이다. 이 숫자는 가장자와 추장자를 설치한 전체 칸수 44칸의 배수가 된다. 1칸 당 1개의 문얼굴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추장자는 칸막이용 창호로서 칸 별로 설치한 문얼굴 상·하 인방의 홈에 끼워 넣었다. 반면에 같은 의궤에서 '영창' 표기가 들어있는 창호는 '상하죽(上下竹)'으로 표현한 홈대에 설치하였다.⁵⁰⁾ '추장자'는 기본 창호로 설치하여 칸막이 역할을 하였고, '영창'은 여단이 창호 문얼굴의 인방에 홈대를 덧붙여 설치하여 덧창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현존 통명전에서 '영창'과 '추장자'의 기능과 구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34년에 재건한 통명전에는 '완자추장자' 24척과 '영창' 8척을 설치하였다.⁵¹⁾ 영창과 조를 이루는 갑창 역시 8척이고, 홈대[竹] 8개를 장착하여 '영창'은 쌍창이었음이 확인된다. 통명전은 일제 강점기에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내 창호를 대부분 제거하였다. 1985년에 작성한 통명전 현황 평면도에서는 당시까지 유지된 추장자의 수효와 위치, 철거한 위치와 수효가 확인된다. 현황도에서 창호는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과 퇴칸에만 남아 있다. 이 중 쌍창이 4개여서 의궤에 기록된 쌍창이 모두 본래의 위치에 남아 있다. 1834년에 이들 쌍창 안쪽에 영창과 갑창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현황도에서 칸을 건너지르는 미단이 창호, '추장자'는 동·서 온돌방과 북쪽 퇴칸의 경계에 각기 4짝씩 남아 있다. 이들 창호는 문인방에 홈을 파서 설치하였다. 미단이 창호는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외기와 접하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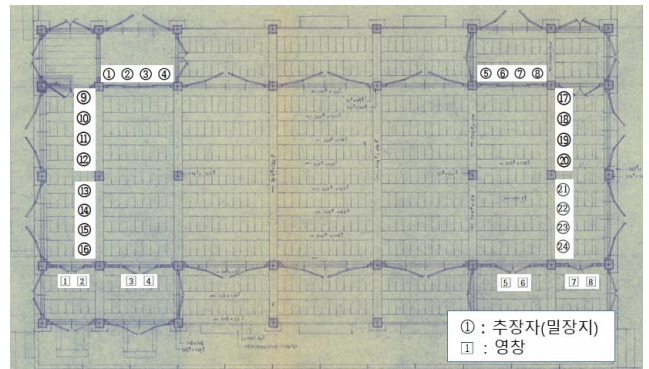


그림 3. 1834년 통명전의 추장자와 영창 설치 위치

분에는 기본 창호인 여단이 창호와 조를 이루어 덧창으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내 칸막이용은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공간 활용에 이점이 있었으므로 문인방에 홈을 파서 기본 창호로 설치하고, 칸막이 기능에 근거하여 '추장자[推障子]'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추장자의 이와 같은 기능과 위치를 현황도에 적용하면 일제 강점기에 철거한 부분과 짝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 칸막이용 창호가 필요한 곳은 동쪽과 서쪽에 각기 1곳씩 있는 반침(半寢)과 방의 경계이다. 반침과 방의 경계는 2칸이어서, 추장자는 칸당 4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 16짝의 추장자를 철거했음을 알 수 있다. 철거한 추장자 16짝과 현황도에 남아 있는 추장자 8짝의 합은 의궤에 기록된 '완자추장자' 24척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1834년에 여단이 창호의 문얼굴에 덧붙여 설치하는 미단이 창호를 '영창'으로, 문얼굴에 기본 창호로 설치하며 실내 칸막이 역할을 겸하는 미단이 창호를 '추장자[推障子]'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제까지 17세기 이후 조선 궁궐 건축에서 확인되는 일본 건축 요소를 살펴보았다. 17세기 중반 이후 왜능화지를 대량으로 수입하였으며, 궁궐 실내를 왜능화지로 도배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18세기 전반까지 취운정 등 소수 건물을 각서까래만 써서 지었다. 18세기 중반 무렵 '영창'으로 불린 미단이 창호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궁궐에 일본 건축 요소를 적용하게 한 주된 요인은 부산의 왜관 건축일 가능성이 크다. 건축 관련 소양이 있는 통역관이나 목수가 왜관을 관찰하거나 일본 목수와 함께 건축에 참여하면서 일본 건축 요소의 장점과 구조를 습득하여 궁궐 건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49) “隆福殿假障子七間(중략)合二十六間隆(중략)隆福殿推障子四間 會祥殿推障子三間 無逸閣推障子二間 會藏閣推障子一間 集慶堂推障子二間 西行閣推障子一間 思賢閣推障子四間 內饒酒房推障子一間 合十八間 所入引中防八十八箇 壁植八十八箇”(『西關營建都監儀軌』)

50) “影窓九隻 匣窓六隻 長影窓四十四隻 長匣窓一隻 上下竹三十四箇”(『서궐영건도감의궤』)

51) 『창경궁영건도감의궤』

고 볼 수 있다. 관찰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왜능화지 도배와 각서까래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정밀한 기술 습득이 필요한 미단이 창호가 이보다 늦게 설치된 것은 왜관 건축의 외면적 관찰과 직접 참여라는 시대적 경험의 선후와도 일치한다. 영창 설치와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새기는 작업장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데에서 시작한 것은 장인의 경험이 영창 설치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조선말까지 유지된 왜능화지 도배는 서양식 두루마리 도배지의 도입과 더불어 단절되었다. 각서까래 사용은 조선 기법대로 지은 지붕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확산하지 못하였다. 미단이 창호는 급속히 확산하였으며, 종류와 구조도 다양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의 목수들은 18세기 중반 이전에 기존 여단이 창호보다 실내를 밝게 하는 일본 미단이 창호의 구조를 습득하고 장시간 일정한 밝기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공간에 임시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창호를 ‘영창’으로 칭하였다. ‘영창’은 기존 창호가 갖지 못한 장점으로 인하여 궁궐 건축에 급속히 확산하였으며, 명칭도 다양하게 분화하였다. ‘영창’은 기존 여단이 창호의 문인방에 흠대를 붙여서 설치하는 덧창호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미단이 구조이면서 ‘추장자’로 이름을 달리하는 창호도 확산하였다. 추장자는 기본 창호로서 실내 칸막이 역할을 겸하는 창호를 뜻하였다. 칸 전체를 건너지르는 문인방에 흠을 파서 여단이 창호 없이 단독으로 설치한다는 점에서 ‘영창’과 구별되었다. 1863년에 철종 능의 재실에 설치한 장자를 ‘推障子[밀장지]’와 ‘開閉障子[여단이장지]’로 구분하여 표기한 것은⁵²⁾ 궁궐 건축에서 ‘여단이’와 ‘미단이’로 대별하는 방식이 굳어지고 미단이 창호 도입 이전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었다고 짐작되는 ‘여단이’ 용어가 성립했음을 알려준다. 이 무렵 창호를 뜻하는 ‘障子’를 ‘장지’로 발음했음도 확신할 수 있다. 여단이 창호에 덧창으로 설치한 영창과 창호와 칸막이 기능을 겸하는 밀장지는 민간으로도 확산하여 한국의 전통 건축 요소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1. 의궤 및 『일성록』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kyu.snu.ac.kr/>)의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일성록』, 『도중실화』, 『왜관이건등록』, 『별등록』, 『감동소

허대전구획절목』, 『[인조]국장도감도청의궤』, 『척사증급』, 『빈례총람』, 『종묘개수도감의궤』, 『문묘세자빈궁훈공도감의궤』, 『명은공주방상장례등록』, 『영정모사도감의궤』, 『선원보략수정시본청의궤』, 『선원보략수정외의궤』,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 『문화묘영건청등록』,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서궐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원행배설장례』,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경운궁중건도감의궤』

2.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main.do>)
3. 문집 : 『용주유고』, 『담헌서』
4. 문화재청, 『칠궁수복방면역보수공사 해체실측 및 수리보고서』, 2022
5. 문화재청공능유적본부창덕궁관리소, 『창덕궁성정각면역보수공사수리보고서』, 2020
6.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취운정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
7. 조현정·김왕직, 「목조 건축의 방연 용례 연구」 『건축역사연구』 26-1, 2017
8. 한지만·이정미, 「전통건축의 障子에 관한 연구 : 障子の 기능 및 미서기의 문헌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0-6, 2014
9. 한지만·이정미, 「한국 건축에서 미단의 도입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7-3, 2021
10. 황보영희·장순용·한동수, 「『경운궁중건도감의궤』를 통한 함녕전의 창호 원형 고찰」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27-1
11. “古都奈良の名利寺院の紹介, 佛教文化材の解説など, 「垂木のお話」”(<https://www.eonet.ne.jp/~kotonara/tarukinoo/ha.htm>)

접수(2023.09.19.)

수정(2023.12.16.)

게재확정(2023.12.27.)

52)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